

가람의 장면들



○인동 봉정사 건축의 맥기는 영선암이다. 영선암에는 아래 큰 마당과 위 작은 마당의 연결점에 한그루 소나무가 있어 그 그늘에 의해 두 마당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적인 분위기를 주고 있다.

이 시리즈는 우리의 불교사원에 대한 건축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흔히 불교건축이라 하면 수석사 대웅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은 목조기와잡 건물들 연상하게 된다. 물론 이들도 불교건축의 소중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 건물만이 건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건축이란 오히려 건물과 건물들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공간적 관계다. 부석사가 아름다운 것은 무량수전 건물 한층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건물들과 잘 조화된 관계, 더 나아가 웅대한 자연과 일체화된 석축과 건물들의 관계에서 오는 감동 때문이다.

이처럼 건축은 전체적이며 집합적이다. 건물은 건축의 부분일 뿐, 건축의 전체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가람들에서 건물은 하나의 방에 불과하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신 불당이며, 산신각은 산신상을 모신 작은 방이자 건물이다. 방을 보고 건축이라 하지 않듯이, 대웅전이나 산신각 건물은 건축이라고 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건축은 공간적이며 입체적이다. 경우가 따라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오로지 감흥과 분위기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공간적 환경의 감동이 바로 건축의 합일을 알게될 때, 우리 가람건축의 가치는 더욱 승화될 것이다.

때로는 대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때로는 창살 하나에 담긴 장인들의 숨결을 읽어야 한다.

김종철

· 1968년 서울생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 취득
· 영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역임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역임
· 문화재 전문위원 역임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 상임이사
· 『한국의 건축』(법주사), 『서산건축』 등의 저서와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구구성과 배치형식 연구』(고서당 건축의 집합구조 연구 등 불교건축 관련 논문 30여편

소나무 그늘에 담긴 미학

봉정사 영선암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봉정사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극락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추정하기로는 고려 중기인 12세기경에 건설된 것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으니 벌써 900년의 세월이다.

기적적으로 보존된 이 건물의 구조미와 역사적 가치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지만, 순수하게 건축적으로 본다면, 그다지 완성도가 높은 건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집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기둥들과 구조부재들은 매우 비경제적으로 보인다.

봉정사에는 극락전 외에도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대웅전, 조선중기의 승방인 고공당, 조선 후기의 대방인 화엄강당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물들이 있어서 '살아있는 야외 목조건물 박물관'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러나 각 건물들의 시대적 차이는 전문가가 아니면 감지하기 어렵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주심포계-다포계-익공계의 전형적인 구조형식을 가진 건물들로 학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저 나무 기둥 위에 기와지붕을 얹은 고만고만한 건물들로 보일 것이다.

건물들의 구조적, 건축사적 중요성보다 더 큰 봉정사의 매력은 천공산 줄기와 기막히게 얽혀있는 가람의 전체구조일 것이다. 옆으로 길게 펼쳐진 능선에 기대어 앉은 가람은 좌우로 두 개의 마당을 만들어 역시 옆으로 길게 펼쳐진다. 가람은 산 중턱의 높은 곳에 경지를 만들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입구 누각까지는 출출한 수많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계단의 폭 역시 옆으로 길게 펼쳐지기 때문에 급하다거나 위험스러운 느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봉정사 건축의 맥기는 동쪽 능선 위에 자리잡은 작은 암자인 영선암이다. 그다지 모양의 승방건물로 감싼 마당에 작고 초라한 법당 두동이 놓여있을 뿐이다. 건물의 질도 본 절인 봉정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성하고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선암은 한국건축이 이룩한 최고의 공간이며 건축임에 분명하다. 이제 건축을 보는 눈을 눈을 보려는 건물이나 화려한 색상에 두지 말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만들어지는 비어있는 공간을 볼 때다. 영선암의 경우 구체적으로 마당이다.

영선암의 마당은 아래 큰 마당과 위단의 작은 마당으로 이루어진다. 두 마당은 세단 정도의 계단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워낙 작은 규모여서 한 눈에 잡힐만큼 붙어있기도 하다. 자칫하면 붙은 것도 분리된 것도 아닌, 어정쩡하고 애매한 마당이 되었을 것을 영선암에서는 분리와 통합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두 마당 사이에는 바위가 하나 놓여있고 바위사이에서 자란 잘 생긴 소나무 한그루가 있다. 앞뒷면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인공적으로 그 자리에 심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소나무의 형태를 감상하기 보다는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그림자는 아래 큰마당과 위 작은 마당의 연결점에 필요한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에 의해 두 마당은 서로 분리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림자에서 두 마당은 관념적으로만 분리되며 실제로는 항상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처럼 분리와 통합, 실상과 허상을 동시에 획득하는 장치가 작은 소나무 한 그루라니 놀랍지 않은가?

영선암은 90년대 초 전세계 영화계의 각광을 받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로케 장소로서도 유명하다. 선(禪)적인 모티브를 주제로 삼은 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배용준 감독은 전국의 사찰을 누었다고 한다. 감독의 눈에도 영선암은 선적인 이미지와 명상의 분위기로 가득한 곳으로 보였을 것이다.

선사가 손을 들어 달을 가리킬 때, 미망의 제자들은 달을 쳐다보지 못하고 선사의 손가락만 본다고 했다. 봉정사 극락전의 건물에만 몰두하거나 영선암 건물의 초라함을 비웃는 것은 흡사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며 손가락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영선암 마당의 한그루 소나무 그림자를 보는 것은 바로 달의 위대함과 감동을 보는 것이다.

법당과 마당 조화 분리-통합의 구조 禪이미지 물씬 영화 '달마가...' 현장

현대불교 99년 기획

나팔여초 조성...안정감 뛰어나

임실 중기사 비로자나불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임실 신림면 삼산동 북창마을에는 천년만에 처음 모습을 나타낸 돌부처가 있다. 중기사는 허름한 시골 집 한채로 구성돼 있는데도 보물(제267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 최대 규모의 석등과 파손된 석탑이 남아 있어 옛날의 사적을 말해준다.

중기사 비로자나좌상은 1924년 법당 서쪽의 광명지수지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불상전체에 발라진 호분과 채색을 최근에 갈아내 불상의 원형이 드러났다. 이 비로자나불은 전체적으로 가슴 넓고 허리 길어 눈 마멸 왼쪽손 소실 도난우려 골방 보관



체적으로 잘 보존돼 있다. 법의는 양 어깨에 세가닥으로 평행층단을 이루며 양팔과 결구부착한 두다리 아래로 흘러내린 통견양식이다.

노출된 가슴부분에는 파주류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지핀인을 하고 있어 분명한 비로자나부처님이다.

석불문화연구회 고재희회원은 "중기사는 원래 통일신라시대 사찰이었던 진구사로 추정된다"며 "불상도 최소한 1천년전인 통일신라시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리=김일우 기자(wwkim@buddhapia.com)

이 넓고 허리가 길고 무릎이 두툼하여 안정감이 조성돼 있다.

머리는 나뭇잎고 눈은 인위적으로 마멸시켰으나 원래는 반개한 것으로 보인다. 귀는 작게 표현되어 있으며 얼굴엔 자비로움이 가득하다.

다시 불인 흔적이 있는 목에는 삼도가 얹게 나타나 있고 어깨는 풍글고 당당한 편이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올려 주먹을 쥐고 있으며 왼손 역시 가슴까지 들었는데 왼손아래 부분과 왼쪽 팔꿈치가 약간 결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

'돌부처 찾기' 올해도 계속됩니다

불교조각원 협찬...스님·지자체·답사팀 제보 바라

올해에도 돌부처 찾기운동이 계속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이대대교수)와 지난해에 이어 펼쳐진 돌부처 찾기운동은 전국에 신재한 돌부처를 찾아 내 역사상을 복원하는 선봉지킴이 캠페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 캠페인은 불사의 정당 불교 조각원(대표 이진형)이 협찬하여 진행 됩니다. 이진형씨는 "천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운 조상들의 땅과 슬기로 조성된 민족문화재를 복원하는 돌부처찾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며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간절한 불심과 기원이 빛어낸 돌부처는 천년 세월동안 만사를 이루지만 생멸속의 귀의처로 자리해 왔습니다.

주위에서 무심코 지나쳤거나 사찰·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돌부처가 있다면 본사로 제보(팔찌 사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 각 사암의 스님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사팀,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제보: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02)732-1523

돌부처찾기 어떻게 진행되나

석불제보 접수(내용 및 사진첨부) → 제보내용 자료정리 → 석불문화연구회 선정 답사 → 정정호박사팀 고종 → 현대불교 월1회 지면보도 → 제보지 홍보

불교조각원

부처님조성 전문 민방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2천만의 깨달음을

정수 명으로 이끄는 신명도 길잡이..

현대 불 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십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근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 입 안 내

- 합본 제4집: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 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cm X 55cm』
- 구입 가격: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921-8434 관음출판사 팩스: 929-3470

악기 쉬운 문당시 사주학 강의

갈매박사 조성우 지음/ 값 12,000원

동정서 배가비결 新 토정비결

백재 지음/ 값 7,000원

비전 원본 그대 唐四柱大典

당시주한 중국에서 유래한 그림으로 사람의 형상을 초·중·말년으로 나누어 쉽게 개성인의 사주를 보는 법의 하나이다.

이선일·전호일 공저 85/296면/ 값 18,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구 중심에 단신이 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땠던 지구 실험을 최초로 주제를 사고 주의를 끌고 하는 등 주대한 실황에 놓여 있을 때, 단신은 어떻게 건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길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김백만 편저/A5신/양장본/값20,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책 담담하고 원가 풀리지 않을 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명술

송철승님 편/신국판/값20,000원

古典 풍수학 섭심부

눈에는 보지 못하고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띠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삼천은 풍수(風水)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大)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걸리지 않는 것이니 인경(人經)은 지명(地名)이라 하였나.

수 카 지음/값 18,000원

· 근간 예단 명리전명, 명리학각 오운육기론은 곧 출판됩니다 ·